



뉴욕 주 내 아시아계 지역 사회

Thomas P. DiNapoli

뉴욕주 감사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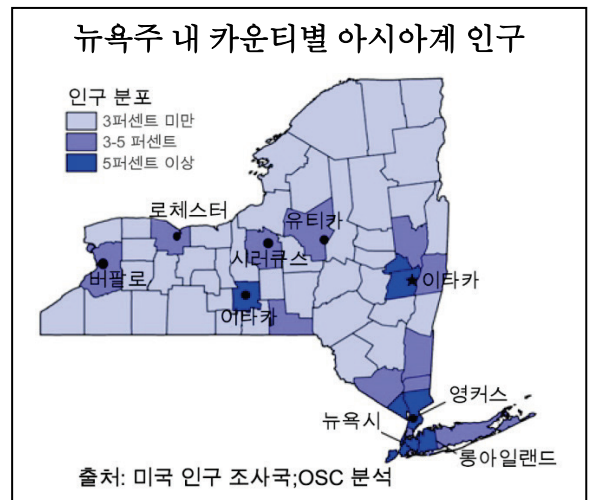
보고서 9-2016

2016년 2월

아시아계 지역 사회는 뉴욕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인종 또는 민족 집단입니다. 뉴욕주 거주자(180 만 명) 중 아시아계의 수는 1990 년 이후 2 배로 증가했으며, 2014 년 현재 뉴욕 주 인구의 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아시아계 인구의 약 2/3 을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데(그 어떤 인종 또는 민족 집단보다 높은 수치), 이는 일반 대중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 3 배 가량 많습니다. 2000 년부터 2014 년까지 뉴욕 주 내 인구 증가 중 87%는 아시아계 지역 사회 덕분입니다. 이 지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일반 대중보다 연령대가 살짝 낮기는 하지만, 65 세 이상 연령대가 2000 년 이후로 약 3 배가 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
뉴욕 주 아시아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종은 중국계(39%)이며, 그 다음은 인도계(22%)입니다. 뉴욕 내 아시아 인구 중 4 개 국가 출신(중국, 인도, 필리핀(7.5%) 및 한국(7.3%))이 3/4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1990 년 이후, 중국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(430,000 명) 인도계 인구는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(188%). 아시아계 인구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 출신(버마인(또는 미얀마인), 방글라데시인 및 파키스탄인 등)의 성장세는 훨씬 빨랐습니다.

뉴욕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시아인(71%)들은 뉴욕시에 거주하며, 2014 년 현재 시 인구의 1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일부 지역(예: Chinatown, Flushing 및 Bayside)에서는 인구의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 몇 십년 동안 아시아계 인구는 뉴욕주의 다른 지역보다 뉴욕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. Albany, Buffalo, Ithaca, Rochester, Syracuse 및 Utica 에는 현재 상당한 아시아계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(지도 참조). 뉴욕주 거주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카운티 10 곳으로는 Queens (27%), New York (14%), Kings (13%), Tompkins (12%), Nassau (10%), Richmond (9%), Rockland (7%), Westchester (7%), Albany (7%) 및 Schenectady (6%)가 있습니다.



2014 년, 뉴욕주 거주 아시아계 인구 중 25 세 이상 인구의 44%는 학사 학위 이상을 받았습니다(주 전체 평균인 35%와 비교했을 때). 교육적 성과는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이민자의 후손에서 훨씬 높았습니다. 2/3 이상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습니다.

뉴욕 거주 아시아계는 2014 년 현재 주 전체 평균보다 실업율이 낮으며, 중앙 단일 가구 수입이 약간 높습니다(주 전체 평균 \$58,800 에 비교했을 때, \$60,000). 뉴욕 거주 아시아계는 약사(31%), 금융 전문가(23%), 컴퓨터 프로그래머(23%), 내과 의사 및 외과 의사(22%), 회계사(18%) 등의 급여 수준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, 개인 의료 서비스(58%), 택시 기사(32%) 및 출납원(15%)과 같이 급여 수준이 낮은 특정 직업 점유율도 높습니다.

뉴욕주 내 아시아계 소유 사업체

뉴욕주 내 아시아계 소유의 사업체 수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122,750 개에서 245,000 개로 2 배 증가했습니다(표 참조). 중국인과 인도인 소유의 사업체가 증가세의 2/3 를 차지했습니다. 이들 사업체의 대부분은 뉴욕주 및 미국 전체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와 비슷하게 소규모입니다. 2012 년 현재 아시아계 소유의 사업체는 뉴욕주 내 전체 사업체의 12%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

아시아계 소유 사업체 수의 증가는 2002 년부터 2012 년 사이에 69%로 가속화되었으며, 그 외 모든 사업체의 증가 속도보다 빠릅니다(13%). 특히 건축, 재정, 교육 및 교통 분야의 성장세가 더욱 높습니다.

아시아계 소유의 사업체는 기업 부문의 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, 교통(26%), 도소매(16%), 개인 서비스(15%), 레저 및 접대(14%), 건축(12%), 비즈니스 서비스(9%), 금융(8%) 및 제조업(8%)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.

2012 년, 아시아계 소유의 사업체는 영업 면에서 810 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, 이는 10 년 전에 비해 166% 증가한 수치입니다(표 참조) 이와 반대로, 이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사업 부문에서 영업은 24%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.

